

자료와 기억으로 복원한 '나의 아버지'

김순남, 김기진 등 굴곡진 현대사 속 예술가들의 삶

굴곡진 현대사를 살다 간 예술가들의 삶이 각자의 자식들에 의해 복원된 책들이 나왔다. 《나의 아버지 김순남》(김세원, 나남)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김복희, 정우사) 《아버지 파인 김동환》(김영식, 국학자료원) 등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그들의 예술적 성과뿐 아니라 가까이서 관찰하고 전해 들은 인간적인 면모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대의 비극과 맞물린 파란 많은 개인사를 '피붙이의 눈길'로 짚어보는 감동도 이채롭다.

천재음악가의 발자취 쫓기

'이 책은 나의 아버지 영전에 그리고 평생 풀지 못할 한을 안고 사시는 나의 어머니께 바친다'는 헌사가 붙은 《나의 아버지 김순남》은 중견 방송인 김세원씨의 '아버지 찾기'의 기록이다. 월북 예술인들의 작품이 해금되던 88년, 김세원씨는 일간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가슴속의 못'이 뿔뿔했다"고 고백해 세인의 심금을 울렸었다. 이 책은 그 못이 뿔뿔한 자리에 여전히 남은 못자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 못자국 때문에 김세원씨는 김순남이 남긴 궤적을 따라 일본·중국·러시아를 헤매다녔다. 김순남을 알았던 이들이 들려주는 몇마디 기억들, 국외에서는 버젓이 팔려온 악보와 음반, 극적으로 입수한 친필 악보들을 모았다.

이 책에는 그렇게 수집된 김순남 생전의 일화들이 김세원씨의 여정과 함께 수록돼 있다. 동경음악대학 입학원서에 배짱 좋게 기재했던 '수업료 면제 희망'이라는 문구에서부터, 불을 뿜듯이 뿜어내곤 했다는 즉흥 피아노 연주의 회상, 53년 숙청된 후 창작이 금지돼 악보를 베끼는 사보사로 일하다가 82년경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전언까지, 정열적이고 순수했던 천재음악가의 비극적인 생애가 여운을 남긴다.

어렵게 구한 김순남의 흑백사진 일곱 컷과 피아노 협주곡 친필 악보도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다. 말미에는 김순남이 48년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20대 분량의 원고, "음악은 언제나 최후의 피난처이며, 기꺼움의 오아시스였고, 때로는 즐기찬 힘이며, 따뜻한 행복이었다. 오늘날에도 나에게는 이 시대의 청아한 감정이 때때로 솟아나올 때가 있다. 요사이 피비린내 나는 현실에서 얻은 참다운 인간의 부르짖음과 함께 이러한 감정도 내가 죽는 날까지



파란 많은 현대사를 살다 간 예술가들의 삶이 각자의 자식들에 의해 복원된 책들이 나왔다. 일반에 널리 알려진 그들의 예술적 성과뿐 아니라, 가까이서 관찰하고 전해 들은 인간적인 면모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다. 김순남, 김기진, 김동환 등 시대의 비극과 맞물린 굴곡진 개인사들을 '피붙이의 눈길'로 짚어보는 감동도 이채롭다.

또한 맑게 살아 있으리라"고 쓴 〈나의 음악수업〉이 실려 있다. 《객석》에 기고했던 것을 재수록한 백남준씨의 글 〈한국의 씨받이, 비운의 천재 작곡가 김순남〉은, 김순남의 비극이 비단 그와 그 가족들만의 것일 수 없음을 이렇게 역설한다.

"...만약 김순남이 순조로운 창작생애를 보낼 수 있었다면 세계사의 극소수의 클래식 작곡가에 속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천재는 언제 다시 태어날지 모른다. 헌데미트

는 '작곡가는 5천만명 중에 하나쯤 태어난다'고 했다. 핀란드에서 하나가 나왔다. 시벨리우스다. 헝가리에서 하나 둘 나왔다. 바르토크와 코다이이다. 이 하나로 이런 소국(小國)이 얼마나 이익을 봤는가. ...하늘은 우리에게 김순남을 주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주었다 뺏았다."

가족에게 자상했던 팔봉의 면모

《나의 아버지 김순남》이 평생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한 애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면,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은 지난 85년 82세의 나이로 팔봉이 작고하기까지 외동딸인 김복희씨가 꼬박 57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던 내밀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이 책에 드러난 팔봉의 성품은 대체로 가정적이다. 1960년 경향신문 주필로 있을 무렵에는 출근 때마다 손주들에게 '무엇을 사다주랴' 하고 주문을 받아 땅콩, 사탕, 비스킷 등 제각기 주문한 것들을 일일이 사서 돌아오곤 했다니 그 자상함을 짐작할 만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조각가인 친형 김복진과의 우애도 유별났다고 한다. 출옥하는 형에게 숨이불을 해주기 위해 20일 동안 들어박혀 장편 《청년

김옥균》을 탈고, 동아일보에서 선원고료를 받았다가, 두 형제가 일경의 포승줄에 묶여 대문을 나서던 새벽 큰길에서 어머니에게 나란히 큰줄을 올리더라는 등의 김복희씨의 회고는 인상적이다.

한편 6·25 당시 인민재판에서 타살형을 받았던 팔봉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기까지의 과정도 짚막한 글(6·25 전쟁과 인민재판)에 담겨 있다. 시체라도 찾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살벌한 서울 장안을 헤매던 일, 너털너털한 살을 비집고 뼈가 비져나온 처참한 모습의 팔봉을 병원으로 옮기던 일 등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그밖에 팔봉이 친밀하게 교류했던 청진 화백, 무용가 최승희, 토월회 멤버 등에 대한 단상들도 뒷부분의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에 한데 묶여 있다.

친일행적에 대한 안타까움 토로

《아버지 팔봉 김기진과 나의 신앙》에서 김복희씨는 아버지의 친일행적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그 후회와 아픔은 눈을 감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파인 김동환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자료들을 800여 페이지의 책으로 엮은 《아버지 파인 김동환》에서 그 안타까움은 아버지를 대신한 사회의 말로 나타난다. 이 책은 파인의 가계와 아호에서부터 학창시절, 신문기자 생활, 잡지 〈삼천리〉 발행인 생활, 작가활동, 정당인 시절, 일제 말기의 친일과 납북, 납북후 생존관계자료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의 행적들을 상세한 자료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 파인이 작품을 발표했던 신문과 잡지, 편지와 메모 등도 화보로 곁들이고 있다.

—한 강 기자

◇독자서평 투고 환영.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 투고자의 성명·주소·직업과 책명, 저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할 것. 게재된 글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립니다.